



전주비전대, 정신건강캠페인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최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전주시 마음안심버스를 추가 운영해 버스 안에서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 하루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전주비전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조현미 센터장은 "정신건강캠페인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의회,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남원시의회 의회재 의장과 사무국 직원 20여명은 지난 13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 등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복숭아밭 약 7,000㎡의 봉지짜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해당 농가는 "과수농사의 특성상 때를 놓치면 안되는 작업이 많은데,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애태우던 중에 이렇게 많은 의회 직원들이 도와줘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건축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 나서

남원시 죽향동(동장 허인선)과 건축과(과장 양근식) 직원들은 지난 13일, 농촌지역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촌을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죽향동과 건축과 직원들은 산동면의 임산물 재배농가에서 산마늘, 무를, 구기자 밭(약 1,900㎡)에서 풀매기 작업을 도우며 땀방울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을 장갑과 낫과 호미를 직접 준비하고 점심도 자체 해결하고 오후 간식거리도 직접 준비하였으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성실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2년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관리하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2022년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총 10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군여성회(회장 박영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북한이주민 가정과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가정에게 행복쿠폰 쿠폰을 만들어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헬멧 자동건조기’ 특허 취득

전주시실공단, 공단 학습 동아리·전문업체 협업 통해 개발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공단 직원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대용량 헬멧 자동건조기'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5월 헬멧 자동건조기 2대를 비상경계기장에 배치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특허출원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단 학습 동아리 '창작발전소' 회원들은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멧 자동건조기 개발에 나섰다. 시중에 헬멧 건조를 전용으로 하는 기성 제품이 없었던 탓에 전문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일반 제습기로 헬멧을 말리는 기존 방식은 살균과 탈취 자체가 불가능하며, 태양 빛에 말리는 '일광건조' 방식 역시 날씨의 구애를 받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 특허를 취득한 헬멧 건조기는 1대당 총 84개의 헬멧을 40분 만에 살균, 건조, 탈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세균과 땀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또한 건조기 작동 중에 각각의 헬멧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항상 쾌적한 상태로 헬멧을 관리할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학습 동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해 직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혁신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그 결과물을 공단 운영 전반에 반영해 공단의 발전을 넘어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명의 기부자, 효자1동 주민센터에 50만원 쾌척

익명의 기부자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동장 허소영)에 5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는 지난 13일 13시경 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 사회복지사 직원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말만 남긴 채 성금을 건넨 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설 명절에도 또 다른 익명의 기부자가 효자동 주민센터에 5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밑반찬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이날 전달된 이웃돕기 성금은 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효자동 관내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허소영 동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준 익명의 기부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익명의 기부자의 마음이 닿을 수 있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김종석 교수, 유방암 연구 '최다인용 논문' 영예

전북대학교 김종석 교수의과대학 생화학교실)가 유방암 전이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를 통해 생화학분야 생물학회로부터 최다인용지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수상 논문은 유방암 전이에 결정적 작용하는 MMP의 조절에 새로운 메커니즘 규명'으로 유방암의 침입과 전이의 기전을 밝힌 것이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SCI급 국제 저널인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Reports(BMB Reports)'에 발표된 이 논문은 그동안 세계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최다인용지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전북대 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암과 노화에서 중앙 억제 유전자 PTEN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동안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종석 교수는 "연구자로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는 타이틀은 그 무엇보다 큰 영예인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 혁신동, 취약계층 65세대 선물 꾸러미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혁신동장 이성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관내 취약계층 65세대에 사랑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물 꾸러미에는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스텐보온·보냉 축통,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위원회·동장협의회 등 6개 자생단체 회원들이 힘을 합쳐 손수 만든 머랭쿠키, 씨알요소메타스(주)가 기부한 울인원 크림과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혁신동장이 직접 쓴 손편지가 담겼다.

이성순 혁신동장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해 흔쾌히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된 선물을 받으시고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관 동장협의회장은 "비쁜 시기이지만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한국기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의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 학생이 최근 한국기계공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후원하는 전북 IP 취업연계형 특성화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개설해 올해로 5년째다.

여수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마찰하중에 따른 분쇄기 임펠러 고유진동수 회피 설계(전주대 이다연, 박세준, 장예림 학생, 이종호 교수, 서로비오 박건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조용근, 정지웅)'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캡스톤디자인 부문에서도 3편의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사업에 참여한 장예림, 박세준, 이종원 학생이 대표 저자로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사업 책임교수인 이종호 교수는 "학생과 호흡하며 참여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력이 함께 협력해 탐·출력 결실"이라며 "산학연구를 통해 기업의 신제품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취업과 연결되는 성과 창출이 기대되기에, 이번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 공민 환경정화 활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소미혜)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3일 함께해서 행복한 동네 만들기 의 일환으로 관내 중산5길 공민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15명의 회원들은 식당 등 상가가 인접한 중산5길 공민과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했다.
김지연 회장은 "코로나 19로 지역주민은 물론 부녀회 또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일상의 회복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중화산2동 만들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춧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2동, 장수투기리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는 지난 13일 장수투기리(대표 임지승)를 방문해 착한가게 9호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게나 기업이 매출 최소 3만 원 이상 또는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게로, 모아진 후원금은 평화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게 된다.

임지승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의 사랑과 나눔의 행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부설초 교사 2명에 총장 표창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전주·군산 부설초등학교 우수 교사 2명에게 총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공 교원은 전주부설초 과학중 교사와 군산부설초 오승민 교사로 이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학중 교사는 학생평가 교육정책연구단과 초등B교육과정 연구의 활동으로 블렌디드형 백워드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해 성장평가를 내실화했다.

또한 오승민 교사는 STEAM 선도학교 운영, 무한상상실 구축 등 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를 확산해 군산부설초의 STEAM 교육 우수학교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을 이끌었다.

박병춘 총장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누구보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해 주 감사드립니다"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학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